

## 농업의 사명은 무엇인가



- 부가가치 없고 위험성 높은 유기농법, 양질농산물 전국민공급 어려워진다

지난 6월 19일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우수농산물 생산과 농약의 안전성」을 주제로한 강연회가 본회 주최로 개최된바 있다. 이 글은 이날 강연회에서 일본宇都宮대학의 명예교수인 竹松哲夫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호에 이어 下편을 소개한다.  
(편집지주)

**유**기농법 농산물은 무농약이므로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말해왔던 최대의 기반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소비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현대의 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암」과 불구의 기형아 출산이다.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 「암」의 큰 원인이라고 매스컴이 계속 주장해온 근거가 1990년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의해 완전히 부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FDA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이 암에 걸리는 확률은 7.6%이며 발암원인물질의 98.7%는 전통적인 보통의 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의 1.3%는 식품첨가물, 의약을 포함한 인공화학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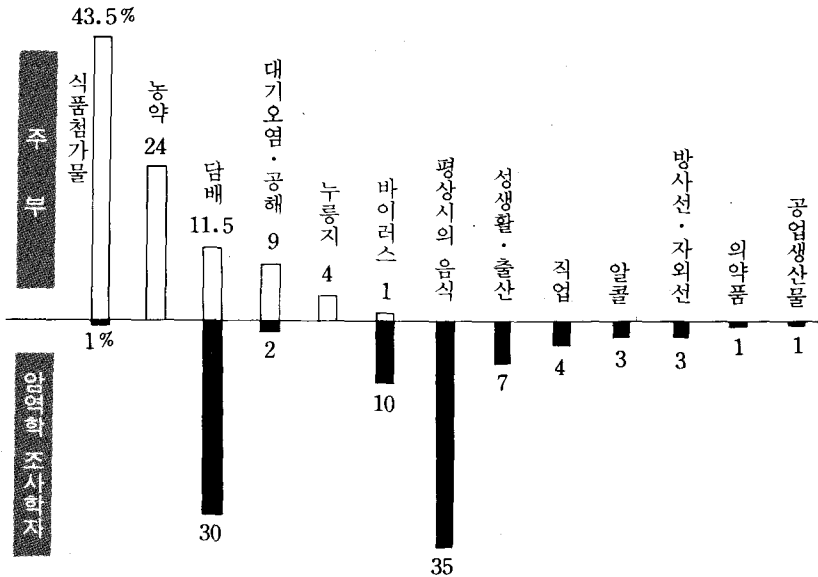
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매우 정밀한 통계학적 연구 결과이다.

더우기 일본의 암연구전문 그룹은 「사람은 왜 암에 걸리는가」 하는 주제를 《생활의 수첩》에 발표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국민대중, 특히 일반 가정주부들이 잘못된 거짓 정보를 유포한 매스컴을 믿고 불안에 떨며,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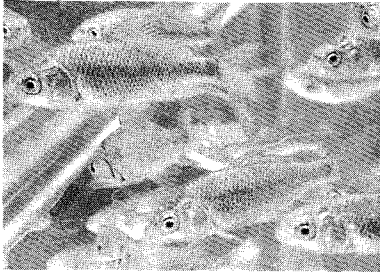
격이 비싸도 또는 벌레나 병균이 붙어 있어도 무농약재배라고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주부와 전문가의 발암원인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표3 참조). 표3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주부들은 암의 원인물

표3. 암의 발생원인에 대한 주부와 암역학 조사학자의 차이



주부가 식품첨가물과 농약이 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한 것에 대한 불안때문일지도 모른다. 식품첨가물과 농약이 없다 하더라도 암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연구자는 우리들이 옛날부터 먹고 있는 평상시 음식물과 담배를 중요시하고 있다.



발암성이나 최기성이 있는 것은 농약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질을 식품첨가물이 43.5%, 농약이 24% 합해서 67.5%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 암과학자 그룹은 농약은 관계가 전혀없는 0%, 식품첨가물은 겨우 1%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미국 양국에서의 이같은 결과의 연이은 발표는 농약의 해를 과대선전해 온 매스컴에 편승한 유기농법의 정체를 백일하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 젤수없는 거짓정보의 해독

농약에는 발암성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발암성이나 최기성이 있는 것은 모두 도태되고 농약으로 허가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농약의 안전성은 일체 무시하고 논에 또는 잔디에 「발암성 농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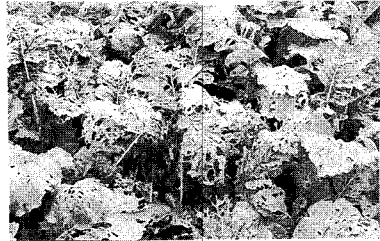
을 미국의 22배나 뿌리고 있다」는 등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기사로 쓰고 있으나 이들 기사에는 과학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이같은 근거없는 기사를 보고도 국민들은 그 대상이 매일 먹는 식물(食物)에 관한 일이므로 공포에 떨고 있다. 이 거짓정보가 주는 해독은 젤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거짓정보로서의 보도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므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론(世論)을 유도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반농약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반과학적이고, 반농약적이고, 유기 땅국농법에로의 길이다. 편집자는 이러한 허위 과대한 것을 쓰지 않으면 잡지가 팔리지 않을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없는 것일까?

### 부가가치 없고 위험성만 높아

무농약으로 재배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쌀은 부가가치가 높아서 30~40% 정도 높게 팔린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도 부가가치는 없다. 부가가치는 커녕 오히려 가치가 대폭 저하되어 있다. 이것을 일부의 소비자가 매스컴이 여론조작으로 만들어 낸 허위정보에 현혹되어 30%~40%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작년 7월 모대학신문은 『화학비료 대신에 퇴비를 사용한 ‘유기재배’ 또는 ‘자연농법’ ‘무농약재배’ 등의 표시가 붙은 채소가 크게 인기였다. 채소 본래의 향기와 맛이 좋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이 채소들은 특수한 재배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낮아 높은 값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면 어느정도 높은가? 그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 동경·오쓰카의 슈퍼마켓에는 ‘자연농법채소’라고 크게 써붙인 코너가 채소매장 중앙에 있는데 일반채소에 비하여 당근 17%, 가지 33%, 양파는 66% 비싸다.

비싸면서 품질이 나쁜 무농약 재배 채소에는 벌레와 병균이 붙어 있다. 이것이 문제다. 벌레는 천적으로 부터 자신을 지



벌레먹은 채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키기 위하여 알이나 유충때부터 아직 어느 누구도 발암성이나 최기형성, 급성독등을 조사하지 않은 독물을 주변에 분비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농작물의 병은 더욱 심한 여러가지 독성물질을 생성하고 그 작용으로 채소가 마른다. 이들 병원균들이 생성하는 식물독은 그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우므로 어느 누구도 그 안전성을 농약과 같이 수십억분의 일을 들여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무농약 채소를 좋아만하고 있을 수 없다. 벌레나 병균이 붙어있는 채소나 과일은 절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 거기에다 맛도 매우 좋지 않다. 이와같이 무농약채소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고, 그 가치는 대폭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면 유기재배채소는 가치가 30~40% 높은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일반채소에 비하여 60~80%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도부지 오늘날의 과학시대에는 존재가치가 없는 농산물인 것이다.

### 우마와 같이 흙만 일굴것인가?

유기농법으로는 나라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다. 한 나라가 번영하려면, 농업이라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될 수 있는데로 줄이고 근대농학을 더욱 활용하여 양질의 많은 농산물을 수확함으로써 가능한 한 싼 가격으로 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이 생력화되고 감소되는 농업인구가 2차 산업(공업)에 더 많이 종사하게 되는 것이 근대국가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한 사람의 농민이 1년 일해서 겨우 자기 한 사람 먹을 정도의 원시농법이라면, 전국민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농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옛날에는 농업이 생업이라 하여 모든 사람이 농업에 매달려 겨우 살아왔다. 이

것으로는 공업이나 상업이 발전할 여지가 없다. 그 시대에는 농경지라고 하는 대지에 전국민이 달라붙어 우마와 같이 가혹한 농업노동을 매일 하면서 생명을 지탱해 왔던 것이다. 그 시대는 흙에서 태어나 흙을 일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死)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 여기에는 문화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산중에 들어가면 전가족이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농작물의 먹이인 화학비료는 없고 농작물에 벌레나 병이 발생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일가족이 총동원되어 잡초를 베고라도, 약간의 수확량(세계평균 수확량의 1/10정도)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원시농법이 행해지고 있다. 본인은 그 실정을 몇번이나 보고왔다. 소나 당나귀의 구비(厩肥)가 유일한 비료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유기농법의 전형적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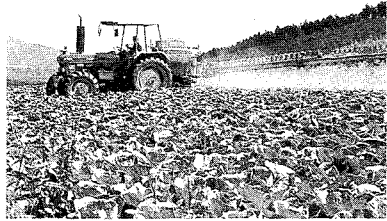
### 국가민족 멸망의 농법인 이유

그러면 일본은 어느정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그 농업인구와 변동 추이를

조사해 보았다. 1953년은 제초제는 거의 없었고, 농기구는 약간 사용될 때이다. 따라서 국민 생활도 어려웠다. 이때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4,000만명이었고 그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1,500만명이었다. 이것은 경제활동 인구의 약 40% 가까운 비율이다.

35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1988년도의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약 6,000만명이었으며 농업종사인구는 1953년의 1/5수준인 435만명으로 줄었다. 대단한 감소다. 이 때문에 1988년에는 2차, 3차 산업에 5,576만명이나 종사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계 제1의 장수국이 될 수 있었다.

만일 농업이 근대화되지 않았다면 상공업이나 정보산업등에 사람을 돌릴수 없었고, 지금도 40%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숫자는 약 2,300만명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단 435만명이 농업을 하고 있어 약 2,000만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농업이외의



농업의 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뀐 지금 유기농법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새로운 산업에 돌릴수가 있었던 것이다. 농촌에서 이와같이 많은 사람을 타산업으로 전환할 수 없었더라면 일본의 오늘과 같은 번영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농업 취업자 435만명중 적어도 80%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만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날은 농업이외의 분야에 종사하는 겸업농가이므로, 실제로 농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업인구는 100만명 이하일 것이다.

이와같이 농업의 형태는 혁명적으로 변했는데 지금에와서 유기농법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인 활동인구의 40%가 1953년경 수준의 농법(이때는 농약도 쓰고 비료도 사용



인류와 농작물은 생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고, 생명의 합일체로 이해해야 한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초제는 극히 일부만 사용했다)에 종사한다면 2~3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부족하여 일본의 상공업은 무너지고 만다. 경제는 대단히 악화되고 3류정도의 국가로 전락될 것이다. 1953년의 농법이 결코 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가 아닌데도 말이다. 지금에 와서 진정한 유기농법을 행하면 틀림없이 국가, 민족은 멸망한다. 이것이 유기농법은 국가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농법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 농업, 그 영원한 산업의 자부심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생물생존의 원리 및 농업철학에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 이들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옥스포드 대학의 J.S.Holdane(故

人)이나 Krzymowski교수(故人)의 「농업철학」(원론)을 한 페이지도 읽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조용히 사색하면 유기농법, 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라는 생각은 떠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농업의 본질은 인류와 재배식물 및 가축과의 이서적(離棲的) 영양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류와 재배식물(농작물)의 관계를 공생(共生)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인은 이것이야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지주이며, 농업이라는 영원한 산업에 종사하는 자긍심이라고 믿고 있다. Krzymowski 교수의 이념을 더욱 쉽게 하면, 인류의 생존은 재배농작물 및 가축과의 균형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인류의 인구증가는 공생하는 농작물 및 가축의 진화에 수반하여 비로소 가능하다. 이와같이 인류와 농작물과는 생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고, 생명의 합일체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유기농법은 이 농업의 숭고한 철학에 명백하게 위배되고 있다.<끝>